

국 외 소 식

● “보라색 물고기를 아시나요”

지난 11월 4일(현지시간)피지섬 근처에서 발견된 새로운 종의 어류, 이 물고기는 손바닥 만한 크기로 짙은 보라색을 띠고 있다. 세계 야생동물 기금 협회(WWF)가 피지섬 주변을 관찰하다 발견된 이 어류는 자리돔 과에 속한다.

EPA / 2005년 11월 7일



● 애완견 키우는 일본 여성 43% “개가 가족보다 소중”

애완견을 키우는 일본 여성의 43%가 이같이 생각하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이 최근 보도했다. 일본 화장품 · 생활용품 회사인 가오(花王)가 수도권과 긴키(近畿)지역에 사는 20~60대 여성 795명을 인터넷으로 조사한 결과다.

이에 따르면 응답자의 90%는 애완견을 가족으로 생각하고 있고, 40%는 사람처럼 대하고 있다. 41%는 애완견과 한 이불을 덮고 자고, 30%는 애완견에게 개인적 어려움을 털어놓는다. 15%는 함께 목욕을 하고, 13%는 아기에게 하듯이 음식을 자신의 입에 넣었다가 개에게 떠먹인다. 일본 여성들 사이에 애완견 의존성이 심화되고 있는 데 대해 전문가들은 미혼 여성, 핵가족, 혼자 사는 고령 여성이 늘고 있는 것과 관계가 있다고 풀이하고 있다.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애완견으로 푼다는 것이다.

애완견 주인들 사이에 개의 건강을 지키는 일이 새로운 숙제로 떠올랐다. 그 결과 개를 위한 수영장과 마사지, 지방을 뺀 건강식, 치석 제거용 껌, 치료비 지원 보험 등 다양한 애완견 관련 상품과 서비스가 시판돼 호황을 누리고 있다.

중앙일보 / 2005년 11월 7일

● 애완동물 위한 인터넷방송 등장

올 한 해 애완동물용품 구입에만 359억 달러를 쓸 정도로 ‘인간의 벗’에 대한 애정이 각별한 미국에

서 애견을 위한 인터넷 라디오 방송까지 등장했다.

‘도그캣라디오닷컴’(www.morusarecords.com)의 청취자는 개, 고양이, 앵무새 같은 동물들. ‘모든 애완동물이 즐기는 인터넷 방송국’이란 모토를 걸고 방송을 시작한 지 넉 달 만에 하루 13만 명(?)이 들을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다고 뉴욕 타임스가 11월 2일 전했다.

세계 각국에서 쏟아지는 이메일 신청곡 중 가장 인기 있는 노래는 엘비스 프레슬리의 ‘하운드 도그(Hound Dog)’, 바하멘의 ‘후 렛 더 도그즈 아웃(Who Let The Dogs Out)’이다. DJ는 음악 사이사이 “집배원에게 친절하게 대하세요. 편지를 배달할 뿐이에요”라고 말을 건넨다. 이른 아침 주인과 함께 산책을 나선 애완동물을 영상에 담아 보여주고 동물보호 자선모금 행사 소식도 전한다. 히스패닉계 주인을 둔 개, 고양이를 위해 하루 한시간은 스페인으로 방송한다.

방송국을 운영하는 애드리안 마르티네즈(34)도 개 6마리, 고양이 2마리를 키우고 있다. 독립음반사인 모루사레코드 회장이기도한 그는 애완 고양이 스니커즈를 보고 방송국 아이디어를 떠올렸다. 왔다 갔다하며 짚어대던 스니커즈가 음악을 들려주니까 진정했던 경험을 살린 것이다.

라디오방송 WROW-AM에서 토크쇼를 진행하는 수의사 래리 패밀리 박사도 “분리장애를 겪는 애완 동물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 방송을 추천했다.

한국일보 / 2005년 11월 2일



● 벽 속에 3주 갇혀 있던 고양이 구출돼

에드거 앨런 포의 단편 소설에 나왔던 ‘공포의 검은 고양이 사건’이 실제로 일어나 언론의 화제에 올랐다. 소설에 나온 검은 고양이는 시체와 함께 벽 속에 갇혔지만, 현실의 고양이는 홀로 벽 속에 갇혀 있던 중 무사히 구조되어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는 점이 소설과 현실의 차이점.

최근 미국 캔사스시티채널의 보도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주 캔사스시티 루이스버그에 위치한 한 주택에서 일어났다. 집주인인 도나 피트먼 여인은 인부들과 함께 보수 공사를 끝낸 주택을 점검하고 있었는데 욕실 벽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은 것.

인부들과 집주인이 ‘벽 울음소리’의 정체를 확인하기 위해 벽을 쿵쿵 치자 욕실 벽에서 고양이 울음 소리가 들렸고, 인부들은 벽을 뜯어내고 갇혀있던 고양이를 구조했다고 언론은 전했다.

문제의 고양이는 욕실 공사 당시 벽안에 숨어 있다가 그대로 ‘밀봉’ 되어 약 3주간 갇혀 있었던 추정

되는데, 현재 인근 동물 병원에서 회복 중에 있다. 또 언론은 방송 광고를 내보내는 등 고양이 주인 찾기에 나섰다.

팝뉴스 / 2005년 11월 1일

국 내 소 식

● [보험이야기] 애완견 교통사고, 주인 60~70% 책임

골목길에서 운전하고 있던 A씨, 그런데 길 옆 연립주택에서 강아지 한 마리가 뛰어나오는 것이 아닌가. 놀란 A씨는 급정거했지만 안타깝게도 강아지는 A씨의 차에 치여 다쳤다. 이런 경우 A씨는 자신이 가입했던 자동차보험으로 보상처리가 가능할까. 또 강아지가 무단횡단하도록 방치한 강아지 주인과 운전자 간의 과실은 어떻게 산정될까. 자동차 사고에서 개의 경우 그 가격이 정해져 있고, 생명체라고는 하지만 강아지가 부상을 입어 발생한 피해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피해 이외의 피해이므로 재물사고로 분류된다. 따라서 현행 자동차 보험에서는 '대인'이 아닌 '대물배상' 항목으로 보상이 이뤄지게 된다. 보상 범위는 원칙적으로 '애완견'이 죽거나 다치면 '물건'이 멸실 및 훼손된 경우에 준해 판단하게 된다. 만약 애완견이 죽지 않고 동물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됐을 경우에는 차량 사고에서 그 수리비가 차 값을 초과해서는 안 되는 것처럼 개의 치료비 보상 한도 역시 개값 내에서 정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애완견이 죽은 경우에는 그 시가가, 다쳤을 경우는 그 치료비가 통상의 손해범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만약 치료비가 시가보다 높으면 시가 범위로 손해액이 제한된다. 그렇다면 과실산정은 어떻게 이루어질까. 강아지 주인은 사람의 무단횡단시 20~30% 선에서 과실비율이 정해지므로 이 사건의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앞서도 언급한 것과 같이 대인손해가 아닌 대물손해가 문제되는 경우여서 '사람의 무단횡단'과 '강아지의 무단횡단'을 동일하게 볼 수 없다. 특히 강아지와 함께 골목길을 걷는 강아지 주인으로서는 끈 등을 매어 강아지가 함부로 돌아다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관리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이 이 사건 사고의 결정적인 원인이 됐으므로 강아지 주인의 책임을 최소한 60~70%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한국경제 / 2005년 10월 31일

1인 시위, 그들이 거리로 나온 이유는?



국회 앞 - “수의사가 생선도 치료하냐고요? 물론입니다”
 무작정 찾아간 국회 앞에서 ‘수의사법 개정안을 철회하라’는 팻말을 들고 있는 이들을 만났다. 팻말 중간에 ‘발암물질 말라카이트 그린’이라는 빨간색 글자가 눈에 들어왔다.


그들은 동물병원장이라고 했다. 1인 시위는 지난 9월 26일부터 시작했다. 중국에서 수입된 양식어류에서 말라카이트 그린 검출된 직후, 항생제 오남용으로 식탁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거리로 나섰다. 최근 송어와 향어, 자라의 말라카이트 그린 검출에 대해서도 “터질 게 터졌다”는 반응이다. “양식장에서 항생제를 트럭으로 쏟아 붓고 있다”며 심각한 항생제 오남용 실태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열린우리당 이영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의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수의사의 진료대상인 동물의 범주에서 어패류를 제외하고, 어패류에 대한 진료권을 ‘수산질병관리사’에게 부여한다는 것이 이 개정안의 골자.

국민건강을 위한 수의사연대 홍하일 위원장은 “수의사가 생선도 치료하느냐는 소리를 많이 듣는다”면서 “본래 수의사가 식품의 위생검사까지 동물유래 식품에 대한 검사·관리까지 한다”며 “오남용으로 동물의 몸속에 잔류돼있는 항생제는 사람에게도 나쁜 영향을 끼친다”고 주장했다.

세계 모든 국가에서는 수의사가 어패류의 질병 예방이나 치료, 검역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현행법상 수의사의 항생물질 처방권을 인정하지 않아 양식업자들에게 자가치료 및 사용을 허용해 여러 가지 폐해를 낳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 1인 시위는 ‘뺨그릇 싸움’이 아닙니다. 수의사들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결의예요. 실제로 1인 시위를 하다보니 국회의원들의 생각도 많이 달라지고 있다는 걸 느끼고요.”

이들은 “내가, 그리고 내 가족이 먹는 음식이 안전했으면 하는 바람에 생업을 포기하고 나왔다”며 “서명운동과 함께 17대 국회가 끝날 때까지 1인 시위를 계속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경향신문 / 2005년 10월 28일